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장성군 명품쌀 수출 탄력

쌀산업 다변화 노력 결실

4개월 만에 러시아 추가수출...우수성 인정



장성군의 명품 쌀 수출이 탄력을 받았다. 장성군은 지난 8일 러시아로 쌀 18톤을 수출했다고 18일 밝혔다. NH농협무역을 통해 수출한 쌀은 부산항에서 선적된 뒤 러시아 사할린 코르시코프 항구에 도착해 사할린 우즈베키스탄 쌀시장과 마트 등에 풀린다. 이번 수출이 주목을 모으는 건 장성군 쌀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성군은 지난해 10월에 러시아로 1차 분량 18톤을 수출한 바 있다. 불과 4개월 만에 추가 수출이라는 성과를 일궈

장성군 쌀의 품질을 인정받은 셈이다. 수출 단가가 1kg당 1,800원에서 1,900원으로 오른 점도 장성군 쌀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장성군은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아 꾸준한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쌀 산업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고 있다. 2015년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해 선풍용 쌀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수출 전문업체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에 약 40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엔 수출업

체 브랜드가 아니라 장성군 고유 프리미엄 브랜드인 '365생(生)'을 달고 처음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장성군이 뛰어난 미질감을 두고 적극적으로 쌀을 수출하고 있다. 장성군은 '명품 브랜드 쌀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조명1호를 적극 보급하고 있다. 조명1호는 전남농업기술원이 고시하가리와 온누리 품종을 교배해 만든 신품종으로 찰지고 구수한 맛을 자랑한다. 조명1호는 수출 전략품종이기도 하다. 장성군의 적극적인 벼농사 지원 시책도 뛰어난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장성군은 민선 6기 들어 맞춤형 비료 지원, 육묘상자처리제 및 못자리 상토 지원, 농약 공동방제 등의 쌀농사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에서 장성군 농가들이 생산한 벼 가운데 30% 이상이 특등을 받은 것도 쌀 품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쌀 수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건 쌀 산업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쌀 수출을 통해 우리 군 쌀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 즐거운 문화체험교실 호응

5개 강좌 운영...초·중·고 청소년 200여 명 참여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즐거움 문화체험교실'이 초·중·고 학생들의 관심 속에 호응을 얻고 있다. DIY전원&페브리카트, 고흥을 스토리텔링하다! 교과서 속이야기 역

사교실, 청소년 관현악 음악교실(플루트·오카리나반, 첼로·바이올린반), 포켓볼 교실 등 1차 개강한 문화 프로그램에 초·중·고등학생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하고 싶고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중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문화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익힌 솜씨와 끼, 재주는 앞으로 5월에 개최하는 청소년 어울림한마당과 12월에 열린 성과발표회에서 그동안 갖고 두는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청소년문화의집은 2011년부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 문화 육성과 진로·직업 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8개 프로그램에 4,500여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얻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의 인성 함양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이 선호하고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테마 캠페인 실시 등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인 가운데 고흥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해 2017년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인정받아 청소년자원봉사 우수기관으로, 또한 자유학기제 우수 협력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함평군,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활동 실시

함평군은 오는 28일까지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펼친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기간을 비롯해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사전 차단하고, 환경오염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오염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며, 배출업

소가 밀집한 산업·농공단지 지역과 상수원수계, 하천 등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간부공무원 1명이 종합상황실 운영하면서 실제 현지점검을 나가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감시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고, 관계법규 위반시에는 시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행정에서도 환경오염 사고 없는 쾌적한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중요한 만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신안군, 꾸지뽕 정지전정 현장실습 교육



신안군은 지난 13일 꾸지뽕 작목반 회원 및 재배농가 50여명과 함께 꾸지뽕 신품종 '대품' 재배기술 및 봄철 정지전정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아성 박사 강의로 묘목관리 요령, 수형관리 방법 등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한 후 꾸지뽕 포장 현장에서 직접 전정기위를 들고 1:1 맞춤형 실습교육으로 진행돼 고품질 꾸지뽕 재배를 위한 핵심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재배농가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꾸지뽕은 속성수로서 잎과, 열매, 뿌리, 줄기에 다량의 황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B,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루틴, 등의 성분이 있어 모세혈관 강화, 당뇨예방, 항암작용 등 약리적인 기능이 뛰어나 신안 꾸지뽕의 시장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안군은 지난 2012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꾸지뽕 신품종인 '대품'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후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현재 49ha 꾸지뽕 단지를 조성, 향후 꾸지뽕 특유의 약리적 기능과 신안군 전체의 경관지원을 결합한 6차산업화 추진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영광군, 4대종교 문화유적지 '웹툰' 시사회

영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대종교 문화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신령스러운 정신문화의 성지에 걸맞게 웹툰을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와 함께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지난 13일에 시사회를 개최했다. 웹툰 대상은 불갑사,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원불교영산성지, 기독교순교지, 천주교순교지 등 4대종교 문화 유적지와 주요 관광지 등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역사적인 실화와 구전, 허구를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웹툰이 완성되면 20~30대 젊은 층에게 4대종교 문화유적지를 이해하는데 한 층 더 도움이 될 것이며 사라지는 청소년들에게도 편리하고 재미있는 문화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군, '2017년 재해예방사업' 전국 우수기관 선정

사업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대책 등 우수

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재해예방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 기관표창과 함께 올해 재해예방사업의 원활한 조기 추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계획이다. 평가는 전국 246개 지자체 중 전국 시·도 자체점검에 따라 선발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8일간 중앙평가단과 민간전문가합동으로 서면·현

장평가가 실시됐다. 2017년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조기 착공 및 준공 실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주민의견 반영 여부,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친수환경 조성 등 6개 지표 57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군은 재해예방 사업별 사전설계 검토 연내 완료, D/B관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대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는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위험

개선지구 2개소에 38억 원 ▲급경사지 6개소에 42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2개소에 4억 원 ▲소하천 4개소에 27억 원 등 총 14개 지구에 1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예방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이 결실을 맺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정기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요명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